

##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통일주일 공동기도문 초안

창조와 역사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어 숭한 고난 속에서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결인들이 분단된 조국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치유하여 주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통일주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갈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기근 등으로 신음하고 있으나, 우리는 마음을 두지 아니했으며 외면한 듯이 살아왔으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외압과 여러 가지 핑계를 앞세워 지척에 있는 북녘의 형제들을 살피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영혼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무관심과 회의와 절망의 어둠을 물리치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미일과 북중러로 재편되는 신냉전 대결구도를 능력의 손으로 막아 주시고, 국제사회가 이 땅의 평화통일을 축복하게 하옵소서. 사망의 그늘에 갇혀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북녘땅에 참된 희년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더욱 견고해진 이상숭배 3대 세습 체제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통일기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어가도록 남북 지도자가 결단하게 하시고, 이 산가족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중물로 미리 이 땅에 보내신 3만4천 명의 탈북민들이 주의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되어 복음 통일의 선봉장이 되게 하옵소서. 해방 전 북한에 있었던 82개 성결교회가 재건되고, 남북이 함께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무너졌던 예배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시고,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다시 한 번 강력한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만유를 통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